마음생각 셋

에세이

글. 충청투데이
편집부국장 · 논설위원 나재필

어머니 손은 약손

새벽이었는지, 아니면 아침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미명의 시간이 걷히고 여명이 다가올 때까지 복통은 계속됐다. 깊게 자고 싶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선잠이었다. 바람이 살갗에 살짝만 닿아도 뻐마디가 저렸다.

아, 기생충이 뱃속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낮에 학교에서 먹은 구충제가 최악의 발악을 하는 것이든지…. 교실에 줄지어 서서 억지로 먹던 하얀 회충약은 산토닌이었다. 쑥의 일종인 '시나쑥' 종자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빈속에 먹으면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메스꺼웠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있었다. 그제야 배앓이를 낫게 해준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가시 배'란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며 배를 어루만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간혹 눈을 뜨면 어머니는 졸면서도 주무르고 토닥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럴 때면 스르르 잠이 쏟아지며 몸이 차분해졌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손을 거친 뒤 아픈 배는 거짓말처럼 말끔히 낫곤 했다. 어떤 마법을 부린 것일까. 과학적 효능을 논하기 이전에 어머니 손은 치유의 손이었다. 체했을 땐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따고, 열이 올랐을 땐 이마를 쓰다듬었다. 의술이 아니더라도 분명 주술적 '약손'이기엔 충분했다. 밤새도록 간호하던 그 절박함, 그 혈루(血淚)는 체온보다도, 눈물보다도 뜨거웠다.

그 당시 배가 아프면 '원기소'를 먹었다. 배가 아파서 원기소를 먹었던 것인지, 원기소를 먹고 싶어 배가 아파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원기소를 먹고 싶을 때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원기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싼 영양제였고, 그걸 먹기 위해선 아프거나 아픈 척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 오히려 원기소를 먹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기소보다 약손으로 빠르게 처방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웃지 못 할 해프닝이었다.

간병 문화가 병을 키운다?

한때 '중동 낙타'가 휘저어놓은 메르스로 인해 한국사회는 삽시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됐다. 이 예측 불가능의 패닉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유탄을 맞은 게 간병 문화다. 메르스 환자 중 약 40%가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이었다는 이유로 돌을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인 특유의 간병 문화를 버려야 하는가. 나는 절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순번을 정해 병실을 지킨다. 물론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 간병인을 구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온 가족이 비상사태다. 적어도 한국적 가족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부모님이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출퇴근할 사람은 없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뿐더러 행여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닐는지 전전긍긍한다. 차라리 병원 침대에서 쪽잠을 잘지언정 고단한 희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입원한 환자가 얼마나 딱하고 외로워 보이는가. 매끼 식사 시간이 되면 환자의 밥을 챙기고, 대소변을 체크하는 일, 검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마다 휠체어를 밀고 약을 챙겨주는 일은 '가족'이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간병 문화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낸 숙주라고 얘기하는 건 잔인하다. '병원이 병을 만든다'며 메르스 확산 진원지로 병원을 지목하는 것 또한 섣부른 판단이다. 병원에서 하는 간병도 약손이다. 아무리 전염병이 돈다 해도 손을 잡아야 가족이고, 손을 잡아줘야 용기를 얻는다. 죽으면서까지 예찬 받는 한 잎의 생애처럼 인간의 생몰(生沒)을 지켜보며 보듬어주는 일, 그건 무사평안을 비는 치성에 다름 아니다. 밤새며 자식의 아픔을 온전히 감내하던 어머니의 약손, 오늘도 그 뜨거웠던 손을 그리워하며 반성한다.

"응달의 어머니여 용서하세요. 양지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는 뻔뻔한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무 것도 해드릴 게 없네요. 하지만 아시죠, 내 마음은 항상 어머니 옆에서 햇살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주름 잡힌 삶이여, 주름을 펴세요. 주름을 만든 제가 정녕 불효자입니다."